

일본 업체 '공인환경감사제도' 99년 도입

일본 환경청은 오는 99년말부터 '공인환경감사제도' (가칭)를 도입, 각 기업체의 폐기물과 온실가스 삭감 등 환경개선 노력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6일 일본 환경청에 따르면 기업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기업들이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공인기관이 감사토록 했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각 산업계의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를 받아 유가증권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과 흡사한 제도로 기업들은 ▲환경보

전을 위한 경영방침 ▲공장의 폐기물·소음발생 현황과 대책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실 가스의 삭감 계획 등을 보고하게 된다.

환경청은 이 제도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유도할 방침인데, 정보공개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폐기물 등의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외부감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환경감리감사요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약 7백개 회사가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니뇨 기상이변 올해도 맹위 떨친다"

엘니뇨 기상이변이 호주 등 지역에서는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미국 서부와 남부, 남미 북부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3월 3일 경고했다.

엘니뇨는 앞으로도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강우와 폭풍우를,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을 유발하는 기후를 가져올 것이라고 WMO는 말했다.

WMO가 이날 발행한 엘니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미 북부, 아프리카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대략 5월까지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 동 칼리만탄주에서는 올해도 삼림화재로 인해 지난해 반년 가까이 이 지역을 비롯해 인근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 연무 피해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반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와 남부에서는 폭풍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 자료는 전망했다.

에콰도르와 페루 북부 해안과 남미 남동부 지역에서도 평상시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북미 중부 지역에서는 향후 몇달간에 걸쳐 평균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지난달 페루와 에콰도르 연안 해수면 온도가 내려갔으나 이는 이맘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사상 최악이라는 이번 엘니뇨의 피해가 올 4월 발생할 것이라고 이 자료는 강조했다.

3~4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발생하는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를 주변 바다보다 1~10℃ 가량 달아 오르게 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을 유발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선진국 독성 쓰레기 대아주 수출 계속

아시아 각국은 지난 2월 26일 선진국들에 의해 쓰레기처리장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유독쓰레기 수출금지협약의 비준을 촉구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론자들은 이날 말레이시아의 쿠칭에서 유엔환경계획 주최로 열린 유해쓰레기 관련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비OECD 국가들에 쓰레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른바 바젤협약에 대한 지지를 다짐했다.

사르위노 쿠수마트마자 인도네시아 환경장관은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에서 나오는 유독 쓰레기의 처리장으로 전

락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 왔다"면서 바젤협약은 개도국 세계의 커다란 승리며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기념비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각국에서 환경 관련 공무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선진국들의 '맹독성 화물'이 잇따라 개도국과 동구권 국가들로 수출돼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자 유엔환경계획의 주관으로 열린 것이다.

바젤협약은 지난 95년 9월에 체결됐으나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가려면 1백 17개 서명국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중국, 제철소 환경오염 줄이려 생산제한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제3의 제철소인 수도강철공사는 수도 베이징의 환경오염을 덜기 위해 생산을 제한키로 했다고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지난 3월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비취회장은 전국인민대표회의 회의에서 "공기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점증하는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는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시장성 등에 주의를 돌리면서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산업먼지와 다른 해로운 물질들을 매일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오염의 주범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비취회장은 무두 2만 1천명의 직원을 둔 이 회사가 천안 문 광장에서 서쪽으로 30km떨어진 공장단지는 그대로 가동할 것이지만 베이징시 중심에 위치한 또 하나의 공장은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강철공사는 지난해 중국 전체 생산량의 8% 정도인 8백만의 철강을 생산하면서 약 1억위안(약 1천 2백만달러)을 오염 방지를 위해 투자했는데 이는 몇년 전만 해도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취회장은 "우리는 한해 1천만정도의 생산을 기대하곤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야심찬 목표와 중국이 지난 90년대 초 이후 채택해온 꾸준한 발전 전략이 일치하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주 오염지수를 사상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27개시들은 이미 이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에 따르면 베이징은 중국에서 셴양(瀋陽), 정저우(鄭州), 광둥(廣東) 다음으로 4번째로 오염된 도시다.

미국, 자동차-석유사 그린카 공동개발 확산

미국 자동차사 제너럴 모터스(GM)와 석유 대기업 아모코에 이어 포드 자동차와 모빌사도 지난 3월 5일 자동차 연료연비 개선과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 '그린카'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제휴를 했다고 발표했다.

모빌의 루치오 노토 회장과 포드의 엘릭스 트로트먼 회장은 이날 양사의 전략적 제휴가 자동차의 연료 및 동력 기술을 개선하고 대체연료 시장을 확대키 위한 것으로 연비 제고와 배출가스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M과 아모코는 지난달 첨단 디젤 엔진과 연료 체계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토 회장은 포드와 모빌의 제휴가 "탄화수소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연료들과 동력원 개발에 크게 기여해 운전자와 환경 모두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로트먼 회장도 "포드가 얼마전부터 석유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던 중 이상적 상대로 모빌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이번 제휴가 양사의 경쟁력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수년간 직간접으로 협력해 왔는데 이번 제휴의

장기적 목표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위해 상용화가 가능한 소형 연료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료프로세서가 가솔린과 디젤 등 탄화수소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해내면 연료전지는 수소를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전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기술은 연료의 연비를 크게 높임과 동시에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면서도 기존 연료 유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장점을 지닌다.

포드는 이미 연료전지 공동개발 제휴를 한 것으로 발표된 다임러-벤츠와 벨러드 파워 시스템사도 모빌과의 제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드와 모빌의 중기 협력 목표는 연료, 엔진, 배기가스 무해처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디젤 직접분사 체계의 공동 개발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또한 가스와 같은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연료공급 인프라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올해 해양·호수연구 집중지원 방침

유엔이 해양 보호를 위해 '해양의 해'로 선포한 올해 미국은 대양과 호수에 대한 연구나 환경오염 조사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미국 정부관계자가 지난 3월 4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 해양 담당관리인 제임스 베이커 박사는 "미국의 대양과 오대호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하는 증거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연방정부가 해양, 해안과 오대호 자원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을 일깨우는 계몽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이커박사는 이날 하원 에너지 환경 소위원회 증언에서

또한 미국의 올해 오염원의 유입, 상업적 어로작업 및 여가를 위한 낚시의 피해, 해안지방을 위협하는 적조현상에 대한 연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양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대외무역의 95%가 해운화물로 미국 항만을 드나들며 해안도시가 미국 관광산업이 벌어들이는 달러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수산업계의 어로작업이 지난 96년 35억 달러를 벌어들이었다고 밝혔다.